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선창초의 흡연예방 캠페인 요청에 따라 18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창초와 패트롤맘광주지부의 협력을 통해 선창초 정문 및 인근 공원에서 '흡연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초등학생이 학교 인근 공원 및 놀이터에서 흡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선창초 교직원 및 학생, 교육청 직원, 패트롤맘 광주지부 활동가들이 협력해 '흡연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선창초등학교 및 패트롤맘광주지부와 협력 학교 정문 앞 및 인근 공원에서 캠페인 실시

실시하게 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부터 학생들의 흡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왔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 야간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흡연의 위험을 알리

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흡연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데 초등학생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면 중·고등학생이 되면 금연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며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은 매우 중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흡연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고흥푸른꿈유치원,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투호놀이·대문놀이 등 유아 수준에 맞게 전래놀이 재구성

고흥푸른꿈유치원(원장 천화정)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해 하는 유아들과 교직원들이 유치원 실내·외 공간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통놀이 한마당은 유아와 교직원이 한복을 차려입고 투호놀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대문놀이 등을 유아수준에 맞게 전래놀이를 재구성하여 선생님들과 유아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가 진행되었다.

전래놀이에 참여한 유아들은 "알록달록한 우리나라 한복이 너무 예뻐요~, 여우한테 잡혀도 재미있어요~, 대문놀이 할 때 차가 떨어져서 달려가 잡았어요~" 등 활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했고, 선생님들이 만

들어주신 산적꼬지와 유자차가 "백만원 하 늘만큼 맛있어요~"라며 행복한 마음을 표현했다.

함께 놀이에 참여한 원장선생님은 "어릴 적에 골목에서 친구들과 즐겼던 놀이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니 어릴적이 생각나네요.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전통놀이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놀이로 더욱 필요한 교육활동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흥푸른꿈유치원 유아들에게 오늘 한 전통놀이 활동은 오늘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전래놀이 이야기로 웃음꽃이 필 것을 기대하며, 내일도 교실에서는 전래 놀이하는 유아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계속될 것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하반기 취·창업지원협의회 개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협의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대학일자리센터장실에서 '2020학년도 하반기 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지원협의회는 지자체와 고용(복지+)센터 등의 외부위원과 당연직(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양승환 대학일자리센터장, 조점수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과장, 심준보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병운 법학전공 교수, 문한식 사회체육학과 교수, 김대경 전기공학전공 부교수 등이 참석

했다. 회의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2020년 추진 업무 보고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사업(디지털, 일경험, 농촌융복합분야 포함) 기업과 청년구직자 연계방안 △2020년 직무체험형 인턴사업 연계방안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규정 개정 △2020년 취업률 조사 대비 사전 조사 결과보고 및 취업률 상승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더불어 대학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긴밀

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순천대 양승환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자치단체와 고용(복지+)센터 등 지역 청년고용을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업을 바탕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대토론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17일 오후 무안군 일로읍 전남체육교육센터 시청각실에서 (가칭)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칭)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나산실용예술중학교 학생을 비롯해 도내 학교장,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장흥유치초중 박호숙 교장의 기존 통합운영학교 운영실태 및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전형권 기획조정팀장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에 교육장이 좌장으로 나서고 각계 각층을 대표한 6명의 패널이 참가해 본격적인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 간 자유로운 상호토론, 청중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 설문지를 활



용해 즉석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운영학교가 연속적인 배움이 가능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초중통합운영학교를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고, 교육환경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인사 분야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환기자

무안교육청, 학교 선택 고민 해결

일반고 고입설명회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지난 17일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고 고입 설명회와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7일 무안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중학교 학부모, 학생, 고등학교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학 후 진로설계 방향에 대한 안내, 맞춤형 진학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변화되는 대입과 고입에 대한 특강과 무안 관내 고등학교 학교 소개가 진행되었고 각 학교별 상담부스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